

배포

2026. 7. 8.(수) /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취임 첫 행보로 서리풀 지구 현장 방문

- 이성훈 사장 “발표된 계획보다 1년 이상 앞당겨 28년부터 주택착공” 을 지시
- 취임 첫 현장 행보로 8일 서리풀 지구 찾아 사업 추진 현황 점검
- 이어 대방 신혼희망타운 건설현장 찾아 폭우·폭염 대비 특별 안전 점검 실시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성훈 사장은 취임 후 첫 행보로 8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리풀 지구를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 이날 이 사장은 지구별 추진 경과와 사업 일정 현안 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발표된 계획보다 주택착공 일정을 과감하게 1년 이상 앞당기도록 지시하였으며 서리풀 1지구와 2지구를 차례로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 서리풀 지구는 서울권 주택공급 확대의 상징적 사업지로, 1지구(18,000호·2월 지정)와 2지구(2,000호·6월 지정)를 합쳐 최대 20,000호 공급이 예정돼 있다.
- LH는 이달 1지구에 대한 지구 계획을 신청하고, ‘28년 주택착공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 승인 및 하반기 보상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리풀 지구 주민들의 반대·존치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며 보상·이주 등 현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LH는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 확대와 신혼부부·출산가구를 위한 중형 평형 신설 등 특화형 주택을 병행 공급함으로써 서울 서리풀 지구를 정부의 새로운 주거정책의 실행 모델로 만든다는 전략이다.

- 이성훈 LH 사장은 "취임 후 첫 현장으로 서리풀 지구를 찾아 사업 조기 추진 방안을 살펴본 것은 수요가 높은 지역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 부동산시장 안정 달성의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라며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등이 서울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 이 사장은 지난 6일 취임식 직후 이틀간 본부별 업무보고를 받은 데 이어, 이날 취임 첫 현장 행보로 서리풀 지구를 방문해 도심 내 주택공급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등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주택공급 과감한 속도 제고'에 충력을 기울이고 있다.
- 한편, 이성훈 사장은 이날 서리풀 지구에 이어 서울대방 신혼희망타운 건설현장을 찾아 폭우·폭염 대비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했다. 이 사장은 올해 '폭염중대경보'가 신설된 만큼,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인 ▲물 ▲냉방장치 ▲휴식 ▲보냉장구 ▲119신고의 준수 여부를 확인했으며,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을 현장에서 철저히 지킬 것을 지시했다.
- 이성훈 사장은 "폭우 대비와 함께 기후변화로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위험이 커진 만큼, 빈틈없는 현장 안전관리로 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담당부서	공공택지사업처	책임자	팀 장	권용걸	(055-922-3830)
		담당자	차 장	전창희	(055-922-3838)
	안전기획처	책임자	팀 장	서한수	(055-922-4952)
		담당자	차 장	진상훈	(055-922-4963)